

■ 서평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정우**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2014년 『21세기 자본』이란 저서로 혜성처럼 등장한 49세 프랑스인 경제학자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 있더라는 표현이 피케티에게 딱 맞다. 피케티는 작년 『자본과 이데올로기』란 새 책을 출간했고 한국 번역판은 올해 출판됐다(문학과 사상사, 2020). 이 책은 전작만큼이나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 같다. 거기서는 주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만을 논의한 데 비해 이번에는 분석대상을 대폭 넓혀 인도, 브라질 등 구황식민지도 포괄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분석을 하고 있다.

피케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다 불평등하지만 나름대로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각각의 불평등체제(régime inégalitaire)는 실제 지배계급의 구성도 다르고, 지배계급의 수탈방식도 다르고,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도 다르다. 『21세기 자본』이 불평등의 크기와 변동 추세를 주로 분석했다고 하면 이번 책은 다양한 불평등체제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논한다.

3원사회

불평등체제 중에서 세계 역사상 보편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존속한 불평등체제로서 피케티는 3원사회tertiary society에 주목한다. 3원사회는 사제(성직자), 전사(귀족), 평민(노동자와 농민)의 3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적 분야를 담당하면서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것이 사제 집단

*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저 / 안준범 역, 문학동네, 2020, ISBN: 9788954671064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경북대 명예교수(joulee@knu.ac.kr)

의 임무다. 전사는 전쟁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전쟁에서 이겨 영토를 확보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임무다. 두 개의 지배계급은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오로지 평민(노동자와 농민)의 몫이다. 평민들의 노동 없이는 어떤 사회도 존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권력에서 배제되었다.

프랑스혁명 전야에 세금 문제로 부랴부랴 소집되었던 3부회의에서 3원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프랑스 토지의 대부분은 귀족과 성직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두 계급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세금은 실제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들이 몽땅 부담하고 있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체제이니 오랜 기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것이 1789년에 드디어 대혁명으로 폭발한 것이다.

3원사회에서 지배계급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16~17세기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 사제의 비율은 성인 남자의 3~3.5%였다. 귀족 숫자가 적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귀족이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반면, 귀족이 많은 나라인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에서는 인구의 5~8% 정도 됐다. 그리하여 사제와 귀족을 합친 1:2 신분의 규모는 인구의 5~10%였다.

유럽의 지배계급은 소수이면서 재산과 권력을 독점하였다. 영국 상원은 원래 사제와 귀족의 전유물이었는데, 1530년 (6명의 왕비를 거느렸던) 헨리 8세가 왕비와 이혼을 승인해주지 않는 로마 교황청과 알력을 빚으면서 사제들을 제명하는 바람에 귀족의 전유물이 되었다. 토지도 소수 귀족의 수중에 집중되었는데, 1880년 영국 토지의 80%를 700개 가문(인구의 0.1% 이하)이 소유했고, 토지의 40%는 250개 가문(인구의 0.01% 이하)이 소유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당시 토지의 25~30%를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정치적 권리도 지배계급이 독점하여 영국 총리는 19세기 말까지도 상원에서 배출했고, 하원 의석의 75%를 인구의 0.5% 이하인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노예제사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있는 사회는 다수 존재하지만 노예제를 가진 사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고대 아테네와 로마,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미국 남부, 서인도제도가 후자의 대표다. 고대에는 노예 비율이 높아서 BC 5세기 아테네에는 노예가 20만 명, 자유시민이 20만 명 살았고, AD 1세기 로마에서도 비율은 비슷해서 노예가 100만 명, 자유시민이 100만 명 살았다. 미국 남부, 브라질, 서인도제도의 노예 비율은 인구의 30~50% 수준이었으나 아이티는 특별히 노예의 비율이 90%나 됐다.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아프리카 노예의 숫자가 2,000만 명이었

는데, 그중 3분의 2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고, 3분의 1은 홍해, 인도양으로 갔다. 남북전쟁 직전인 1860년 미국 남부에는 4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다.

건국 초기 다섯 명의 대통령 중 네 명이 버지니아의 노예주 출신이었다(예외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3대 대통령 제퍼슨은 각각 미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며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에도 등장하지만 실제 두 사람은 수백 명의 노예를 부렸던 노예주였으니 기막힌 일이다. 16대 대통령 링컨 앞의 15명의 대통령 중 11명이 노예주였다. 노예제 때문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1865년 4년간 계속됐는데, 사망자가 60만 명 이상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양차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의 합계를 능가한다.

식민사회

식민주의는 대체로 2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1500~1850년의 시기로서 군사적, 수탈적, 폭력적, 인구말살적 성격이었다. 이 시기 노예 숫자는 인구의 80% 이상이었다. 1520년에 남미 원주민은 1,500만~2,000만 명 살고 있었는데, 대규모 인구말살로 인해 1600년에는 200만 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그 대신 혼혈 인구가 증가해서 1650년에는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1820년에는 3분의 1, 그리고 1920년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혼혈 인구였다. 북미 인디언들도 초기에는 500만~10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900년에는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식민지배의 2단계는 1850~1960년 시기로서 식민지배의 성격이 과거에 비해 보다 유연해졌고 때로는 박애적 성격조차 보인다. 이 시기 식민지 예산을 보면 대개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면서 불공평한 세금인 인두세의 비중이 높았다. 세출은 주로 행정, 경찰 등 치안 유지에 많이 쓰였고 교육예산은 비중이 낮는데다가 그 내용에서도 유럽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어 상위 10%에 교육지출의 80%가 배정됐다. 결국 2단계 식민지배라는 것도 1단계보다는 덜 폭력적이지만 극단적 불평등, 불공평을 특징으로 한다.

식민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인도이므로 피케티는 인도에 대해 특별히 한 챕터를 할애한다. 인구 3억의 인도를 지배한 영국인은 20만 명이 채 안 됐고, 그 중 절반이 군인이었다. 이것은 인구의 0.1%가 전체를 지배했다는 뜻이다. 인도는 뿌리 깊은 카스트제도로 악명 높다. BC 2세기에 나온 『마누법전』에는 다양한 신분이 정의되어 있는데, 카스트의 숫자는 무수히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신분 체계였다.

브라만은 사제, 학자 집단이다. 크샤트리아는 전사 계급으로서 여기서 왕이 배출된다. 바이샤는 농공상에 종사하는 생산적 계급이고, 수드라는 위의 세 카스트에 봉사하는 하층 계급이

다. 그 밑에 도축, 피혁업에 종사하는 불가촉천민이 있다. 천민의 숫자는 1931년 조사에서는 인구의 21%로 나타났고, 21세기에 와서는 2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분별 재산의 불평등은 심각한데도 개혁은 요원하다. 1950년 제정된 헌법은 보수적이어서 농지개혁은 아예 시도조차 없다. 아마 재산 문제나 재분배 문제를 언급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030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국 인도가 오랜 신분차별과 식민지배의 유산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소유자사회

프랑스혁명은 3원사회의 극심한 불평등을 배경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혁명으로 세상이 뒤집히니 유럽의 왕과 귀족들은 공포에 떨었고, 평민들은 새 세상이 올 걸로 기대했으나 그게 쉽지는 않았다. 혁명 직후 기세등등하던 혁명 세력은 분열했고, 보수화했다. 오늘날 쓰는 좌우라는 개념도 혁명 직후 급진파(자코뱅)와 온건파(지롱드)의 좌석 배치에서 나온 말이다.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반동의 역사가 시작됐다. 혁명과 반혁명이 거듭됐다. 놀고먹는 사람 대신 일하는 사람이 보상 받는 시대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귀족은 서서히 몰락하고, 사제들도 풀이 죽었으나 자본가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했다. 자본주의시대가 왔다. 뭘니뭘니해도 돈이 최고인 세상이 왔다. 이 시대의 영웅은 자본가다. 자본가, 부자들 편에 서는 이데올로기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호를 옹호하는 소유주의, 실력 있는 사람이 우위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력주의meritocracy,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가 승리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등등. 19세기 내내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고 상승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른바 ‘아름다운 시대’(Belle Epoque)에 오면 경제적 불평등이 절정에 이르러 소득 분배에서 꼭대기 10%는 50~60%의 소득을 가져갔고, 부의 분배에서는 더 심해서 80~90%를 가져갔다.

이때 미국에서는 록펠러, 카네기 같은 소위 강도남작Robber Barons들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며 ‘도금시대The Gilded Age’(풍자의 달인 마크 트웨인이 붙인 이름)를 열었다. 국가는 사법, 경찰, 행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본가들을 밀어주었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갔다. 칼 맑스의 『자본론』이 출간된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였다.

1789년 8월 4일 프랑스혁명의 국민의회는 사제와 귀족의 특권을 폐지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의결했으나 불평등의 축소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사제와 귀족이 갖던 절대권력은 중앙집

권적 국가로 이전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던 막대한 재산권은 신흥부자들에게 이전됐다.

대책은 무엇인가?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21세기는 앞으로 자본의 힘이 커지고 불평등이 커지는 세습자본주의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어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케티의 처방은 세 가지였다. 사회국가, 누진소득세, 그리고 세계자본세. 사회국가는 보통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누진소득세에 대한 피케티의 애착은 매우 강하다. 그는 자본주의 황금시대 때 영국과 미국의 누진소득세의 최고세율은 80~90%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세계자본세는 피케티가 처음 내놓은 독창적 아이디어다.

이번 저서에서 피케티는 25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자본 제도, 그리고 세계 차원의 금융등기부 도입을 주장한다. 이것은 옳은 방향인데, 세계 정부가 없는 현실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를 합의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하는 토빈세Tobin's tax조차 현실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 차원의 금융등기부 작성이나 세계자본세 도입도 가능성이 희박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저서에서 피케티가 새로 제시하는 대안은 참여사회주의다. 이것은 소련형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초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아이디어다. 피케티는 구체적으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스웨덴의 노동자 참가제도를 논의하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한다. 이 아이디어는 실은 패전국 독일을 공동 점령했던 미·영·불·소 4개국 이 다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혁을 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자면 군수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석탄 등 몬탄(Montan, 영어로는 mountain)산업에서 노사 동수로 이사회나 감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경영자들이 과거 히틀러에 추종하여 군국주의 침병 노릇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였다.

그 뒤 비몬탄산업이나 회사 규모가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가 3분의 1 참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스웨덴은 독일을 모델로 하되 노동자 참가 비율을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자 참가제도는 생산성, 노사협력, 장기근속 등에 유리한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제시했던 3가지 방책이 모두 한계에 부딪히자 노동자 참가라고 하는 보다 진보적, 민주적 대안을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의 중요성: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제시했던 3가지 정책은 모두 실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피케티는 지난 몇 년 간 이 문제를 집중 고민한 듯하다. 그래서 피케티가 발견한 길은 정치다. 그는 돈과 재산이 지배하는 소유자사회와 초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정책만 갖고는 안 되고, 정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의 정치와 선거가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해온 것을 발견했다. 즉, 과거 하류층, 노동자의 정당이었던 사민주의 정당(또는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 포함)들이 더 이상 하류층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집단을 그는 브라만 좌파라고 부른다(한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좌파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 반면 부자들(피케티는 이를 상인 우파라고 부른다)은 시종일관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정치에서 이런 새로운 경향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은 피케티의 큰 업적이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재산(소유)과 국경(경계)이란 두 개의 주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민족 문제, 이 두 가지가 현재 지구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 하나의 흐름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배타주의적 민족주의, 사회토착주의, 또는 인종적, 민족적 뿌리를 중시하는 정체성주의의 득세를 우려한다. 불평등과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민주의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다고 질타하면서 피케티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사회연방주의를 제시한다. 이는 전통적 좌파들의 이념인 1국주의를 지양하고 세계연대주의로 가자는 생각인데, 아직 구체적 내용을 갖춘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피케티는 동서고금, 종횡무진 엄청난 박식을 자랑한다. 3원사회, 노예제사회, 식민사회에 대한 분석은 역사학자 수준이다. 19세기 이후 소유자사회가 등장하면서 세금 자료를 중심으로 각종 통계가 나타나고, 불평등의 수량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소유자사회는 20세기에 들어와 뉴딜정책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레이건, 대처의 시장근본주의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오면서 민족 문제, 이민과 난민 문제가 얹히면서 불평등의 분석은 한층 복잡해졌다. 이 책의 주제어는 시종일관 재

산과 국경이다. 피케티는 불평등과 민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이 경제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역사와 정치를 중시하는 종합 사회과학에 가깝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문사철의 위력이다. 보통 경제학자들의 전문적, 기술적 저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통찰력을 이 책은 독자에게 선사한다. 책 제목이 『자본과 이데올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피케티는 자본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중시한다. 피케티는 책의 서두에서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역사는 불평등의 역사이며, 어떤 체제이든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피케티의 생각은 맑스와 차이가 있다. 맑스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고 설파했지만 피케티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의 역사라고 해석한다. 맑스는 역사 발전을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진 토대와 정치, 의식, 문화, 이데올로기 등 상부구조로 나누고, 상부구조는 어디까지나 수동적으로 토대에 조응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반해 피케티가 강조하는 것은 정치나 이데올로기 같은 상부구조가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방통행이며, 이것은 맑스의 일방통행적 역사 인식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